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가족·소비·주거생활을 중심으로-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 With a focus on the family, consumer, and housing life -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朴景蘭
조교수 諸美卿
조교수 吳燦玉

Dept. of Home Management, Inje Univ.
Associate Prof. : Kyung-Rhan, Park
Assistant Prof. : Mie-Kyung, Jae
Assistant Prof. : Chan-Ohk, Oh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A survey using interview was administered to 221 elderly women living in Seoul and Pusa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was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r eldest son's wife, shared activities, financial strain and location.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life satisfaction were financial strain, materialism, tenure and the number of income sources. Housing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the convenience of neighborhood facilities, tenure and housing

* 이 연구는 1994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structure type.

2)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r eldest son's wife, social activities, financial strain, tenure and the reason for independent household formation explained the variance of the life satisfaction about 29% by using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ethod.

I. 서론

1980년대 이후부터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 주요 현상이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이다.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이미 그 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구 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이가옥 외, 1989) 점에서 점차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젊은층에서도 역할의 다양화와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핵가족화 현상 및 소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독신 또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가족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생활의 편의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일정한 구조나 기능 및 유용성만을 가진 것으로 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공세권 외, 1993).

그러나, 노인단독가구는 이러한 다른 연령층의 비 전통적 핵가족 유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서, 젊은 미혼층의 단독가구나 장년층의 단독가구는 자신의 선택여하에 따라 형성되지만, 노년층의 단독가구는 자녀들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사유나 또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발달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에게서 별거, 유리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이가옥 외, 1989 ; 배화옥, 1993). 그리고 노인단독가구는 노년기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인 의존도가 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만약 이들이 분거를 위한 심리적 적응과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을 때 사회복지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장경섭, 1991) 예상한다. 또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노인단독가구나 할지

라도 오늘날의 노인들이 가족지향적이고 자녀지향적인 삶을 살아 온 세대임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의 단독가구 노인들은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핵가족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고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인구 구성이나 성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노인이 독신가구 형태로 단독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때, 단독가구 여자노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연구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취약적 기능인 정서적, 경제적, 보호문제의 측면(장인협·최성재, 1987)에서 단독가구노인의 생활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가족, 소비, 주거생활의 만족도 및 그들의 전반적인 노후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해 보는 데 있다. 앞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다 만족한 가족세대간의 상호작용, 보다 자립적인 노후의 경제생활 및 합리적 소비생활,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인 개인과 노인을 둘러싼 가족, 사회가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단독가구의 개념 및 현황

노인단독가구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노인단독가구는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다(이가옥 외, 1989).

우리나라의 노인단독가구는 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 전체노인가구중 '88년에 22.9%(노인독신가구 9.6%, 노인부부가구 13.3%)이고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노인독신가구 2.2%, 노인부부가구 3.0%)이었으나, '94년에는 38.5%(노인독신가구 14.9%, 노인부부가구 23.6%)로 15.6%나 늘었고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노인독신가구 3.4%, 노인부부가구 5.3%)로 지난 6년간 노인단독가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이가옥외, 1989, 1994).

2. 생활의 질

1) 생활의 질 개념

생활의 질 개념은 사회노년학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이나 목적, 방법이 상이하여 지금까지 그 정의나 개념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Beswick과 Eadik(1986 ; Hugles, 1990 재인용)은 생활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의 욕구, 이러한 욕구에 대한 상대적인 주관적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George와 Bearon(1980)은 "생활의 질은 '생활의 조건(condition)'과 '생활의 경험(experience)'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ugles(1990)도 생활의 질의 개념정의와 이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의 '조건'은 생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주관적 만족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ugles(1990)의 생활의 질 개념에 근거하여 단독가구노인의 생활의 질의 개념을 생활의 객관적·주관적 요소의 통합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생활만족도 개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년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발하게 다루어져 온 연구주제로서, 구성요소에 따라 단일차원에서(Quinn, 1983) 개념화되기도 하며, 다차원에서(Medley, 1976) 개념화되기도 하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들은 행복, 긍정적 자아존중도, 적절한 생활적응, 건강한 심리적 복지를 포함하고 있다(Muhs, 1977).

본 연구에서는 생활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로 생활만족도를 정의하고 노인이 현재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3)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1) 배경변인

연령 : 노인의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없다는 결과(이영은, 1990)로 양분되며,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다시 고령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하다는 결과(박충선, 1990)와 반대로 연소노인이 더욱 안정하다는 결과(김수연, 1987)로 나뉘어져 연구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중복 질환의 정도가 증가되므로(이가옥 외, 1989),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수준 : 노인의 높은 소득과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Chatfield(1977)는 은퇴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역할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수준 :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대체로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들이 적게 받은 노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표명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영은, 1990)

; Krause, 1993).

건강상태 : 노후의 건강상태는 노인의 모든 생활 요소 가운데 생활만족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박충선, 1990 ; Muhs, 1977 ; Quinn, 1983) 밝혀지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독신 또는 노부부만으로 생활하므로 이들의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된다.

결혼상태 : 남편동거 여자노인에 비해 독신여자인은 가족체계 자원에 더욱 의존적이 되어 자녀관계나 고부관계(김태현·한희선, 1990) 및 전반적인 생활(이영은, 1990)에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활동량 : 여러연구(최혜경, 1985 ; 이우복, 1993)에서 노인들이 단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대인관계지향적으로 사회화 되어온 여자노인에게 있어서는 단체활동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가족생활실태변인

접촉의 양(전화·만남빈도, 공유활동량) : 노부모-기혼자녀간의 전화·만남 등의 접촉의 양은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Walker와 Thompson(1983)은 접촉의 양은 모-기혼딸간의 친밀한 관계를 결정짓는 변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Houser와 Berkman(1984)도 모와 기혼자녀간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접촉의 양이 많으나 적으냐의 여부가 아니라 접촉의 양에 대한 모의 만족여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대간의 양적 상호작용을 다른 측면에서 연구한 Kennedy(1992)는 세대간의 접촉시 각자 시간을 별도로 보내는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보내는가의 여부가 세대간의 친밀감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볼 때, 자녀들이 자발적인 동기에서 노부모를 전화, 방문하고 활동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세대간의 친밀감을 높혀 줄 것이며, 노부모들의 생활만족을 높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양을 '전화·만남빈도'와 '공유활동량'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

다.

접촉의 질 : Houser와 Berkman(1984)은, 만족스러운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의 안녕에 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간의 접촉의 질이며, 접촉의 내용과 성격이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효과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Quinn, 1983), 자녀들의 따뜻한 지지와 대우로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때(Sanders, 1983) 노인들은 가족생활과 노후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지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지원도 : 세대간의 도움유형과 친밀에 대한 연구에서, Thompson과 Walker(1984)는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 받는 호혜성이 높은 유형의 모녀들이 호혜성이 낮거나 서로 의존적인 유형의 모녀들보다 세대간에 더 큰 애착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노부모들은 가족에 의한 노후부양을 여전히 원하고 있으며(박경란·임춘희, 1991), 또한 노인단독가구가 제가족기능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음을(장인협·최성재, 1987)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혼자서 또는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노인들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생활 및 노후생활을 만족스럽게 지각할 것으로 가정된다.

(3) 소비생활실태변인

재정부족도 : Medley(1976)는 경제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득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정적정도 또는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의 지표가 된다(Spreitzer & Snyder, 1974). 또한 많은 연구들(Spreitzer & Snyder, 1974 ; Lee, 1994)이 재정적 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장구매문제 : 노인소비자에 있어 생존유지와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문제보다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구매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성림, 1990). 그런데 65세 이

상의 노인소비자는 다른연령집단에 비해 불공정한 기업관행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불평경향이 낮기 때문에(Perloff & McCaskey, 1978), 노인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기능해야하고 전체 복지의 부분이 소비자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장구매에 대한 소비자만족이 생활만족도를 결정한다(Bearden, Gustafson, & Mason, 1979).

물질주의 : 물질주의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없었으나, TV시청량과 생활만족도간의 연구에서는 TV시청을 많이 할수록 자신을 평균인과 비교하여 물질적 소유의 부족이 불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Rahtz, Sirgy & Meadow, 1988).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몇번의 전쟁을 겪었으며 물질의 빈곤을 뼈아프게 경험한 집단이므로(이민표·박명희, 1992) 물질에 대한 가치등은 구미사회의 노인들과는 다를것이고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주거생활실태변인

주택유형 : 대부분의 노인들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 노인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유지에는 더욱 편리하다. 따라서 주택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단순한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사용형태 : 대부분의 기존의 주택은 2가구가상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지은 주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택에서 다른 가구와 함께 살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뿐아니라 행동상의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소유형태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의 경제적 능력뿐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상징해주므로 주택소유형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장은정, 1990).

선행연구(박경란·임춘희, 1991) 결과를 보면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노인이 임차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설비수준 : 주거설비수준은 주택의 질적 수준을 판단해 주는 주요 척도로써, 주택의 난방상태와 온수공급여부 등의 주거설비수준은 주택내부환경의 주요 결정요소이다. 따라서 특히 많은 시간을 주택내에서 보내는 노인들의 생활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이용편리도 : 주택단위뿐만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이용편리도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주변에 제공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노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뿐아니라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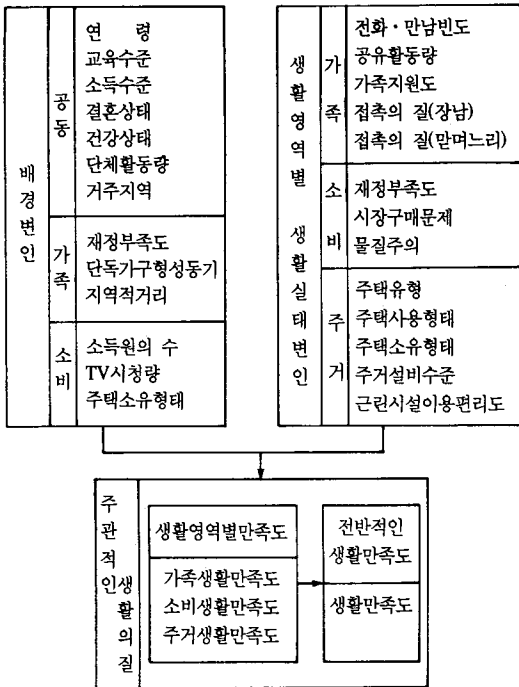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족, 소비, 주거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및 생활영역별 실태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및 가족, 소비, 주거생활 실태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척도구성 및 내용

각 조사도구의 척도구성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단독가구여자노인으로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최소한 1년 이상 생활하고 있고 장남가족(손자녀 포함)이 있는 노인 221명이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1995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부산과 서울에서 가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면접자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동시투입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과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66.5세였고, 교육수준은 국졸이 38.0%, 무학이나 서당이 25.9%, 중졸이 18.5%, 고졸이 17.6%의 순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소득수준은 평균 73.2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53.0%)와 독신으로 있는 경우(47.0%)가 반반정도 되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61.1%였다. 단체활동량은 활동별 평균값을 구하여 본 결과 종교/봉사활동(3.49)과 친구모임(3.48)을 비교적 자주 하고, 다음은 계모임(2.77), 운동(2.65), 취미활동(2.53)의 순이었으며, 여행(2.21)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부산이 53.4%, 서울이 46.6%로 거의 반반이었다.

재정부족도는 평균 12.27점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가구 형성동기는 자발적인 경우가 25.7%, 비자발적인 경우가 68.2%였다. 지역적 거리는 장남과 같은 도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57.5%,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2.5%였으며, 소득원의 수는 1가지(35.3%), 2가지(33.9%), 3가지(23.1%)의 순으로, 2가지이상인 경우가 64.7%나 되었다. 하루 TV시청량은 평균 4시간으로, 3시간(22.7%)과 4시간(22.2%)이 많았고, 5시간이상이나 시청하는 경우도 35.7%나 되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67.4%, 전세나 월세인 경우가 32.1%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

1) 가족생활만족도

단독가구 여자노인이 인지하는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가족생활만족도는 만며느리와의 접촉의 질($\beta = .36$), 공유활동량($\beta = .30$), 재정부족도($\beta = -.27$), 거주지역($\beta = -.12$)의 4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독립변인은 가족생활만족도의 4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모-장남부부의 질적 관계변인 가운데 만며느리와의 접촉의 질만이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족생활만족도의 주요 결정요인이

〈표 2〉 생활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중회귀분석

		(N=200)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가족생활 만족도	만며느리와외의 접촉의 질	.07	.36	6.39***	.261	
	공유활동량	.04	.30	5.17***	.361	.100
	재정부족도	-.05	-.27	-4.69***	.413	.052
	거주지역	-.21	-.12	-2.20*	.426	.013
	(상수)			2.46		
소비생활 만족도	재정부족도	-.15	-.43	-6.67***	.305	.305
	물질주의	-.09	-.16	-2.74**	.329	.024
	주택소유형태	.44	.14	2.22*	.351	.022
	소득원의 수	.20	.13	2.19*	.366	.015
	(상수)			8.86		
주거생활 만족도	근린생활시설이용편리도	.13	.30	3.82***	.103	.096
	주택소유형태	.68	.21	2.66**	.136	.124
	주택유형	-.61	-.19	-2.44*	.172	.154
	(상수)			3.85		

주) 주거소유형태(타가=0, 자가=1), 단독가구형성동기(기타=0, 자유로운 생활위해=1), 거주지역(서울=0, 부산=1), 지역적거리(같은도시 거주/이웃 거주, 다른도시 거주/이웃 거주)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관적인 생활만족 평가에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Quinn, 1983) 지적과 일치되는 것이나, 가족생활만족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나타난 장남과의 질적 관계는 기존연구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만며느리와외의 관계는 노인단독가구 형성 및 지속과정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관련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대간의 양적 상호작용에서 장남가족과의 '전화·만남빈도'와 '가족지원도'는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가족생활만족도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으며 중요한 측면은 자녀들과 함께한 '공유활동량'이라는 결과도 특기할 측면이다. 이 결과는 Kennedy(1992)의 지적대로 세대간의 공유활동은 서로의 유대를 지속시켜주고, 서로의 애정을 나타내 주고, 서로를 잘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상호간의 접촉에서 각자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활동에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객관적인 소득액보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정상태가 가족생활만족도에 중요 변수로 작용되었다. 재정적 자립은 단독가구 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원순영, 1985),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세대간의 긴장을 적게 해 줄 것이며 따라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노인자신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로서 인지할 가능성을 적게 해 줄 것이다.

2)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재정부족도($\beta = -.43$), 물질주의($\beta = -.16$), 주택소유형태($\beta = .14$), 소득원의 수($\beta =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족도와 물질주의의 성향이 낮을수록 자가일수록 소득원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4변수

의 설명력은 약 37%이고 소비생활실태변수의 영향력이 배경변수의 영향력보다 더 컸다.

3) 주거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린생활시설 이용편리도($\beta=.30$), 주택소유형태($\beta=.21$), 주택유형($\beta=-.19$)이었으며, 이 중 근린생활시설 이용편리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다음은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의 순이었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이용편리도가 높을수록,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그리고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일 경우가 주거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주거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17.2%($R^2=.172$)였다.

3.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1) 생활영역별 만족도 변인 분석

우선,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투입 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가족생활만족도($\beta=.53$)이며, 그 다음이 소비생활만족도($\beta=.15$)였고, 주거생활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2개 변인은 총변량의 3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이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의 수준보다 노인의 생활만족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Medley(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소비생활만족도나 주거생활만족도에 비해 가족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이 월등하게 큰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만60세 이상된 여자노인들의 경우 그 대부분이 자녀지향적이고 가족지향적인 삶을 살아 온 세대들이므로, 생활

〈표 3〉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1) (N=219)

독립변인	b	β	T
가족생활만족도	2.49	.53	8.40 ***
소비생활만족도	.40	.15	2.19 **
주거생활만족도	.01	.00	.05
(상수)	4.22		
R^2		.381	

** p < .01 *** p < .001

의 모든 관심과 희망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기(유영숙, 1985)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소비생활만족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이어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것은 전반적인 가족생활이 원만해야 노인과 가족들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개인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환경으로부터의 문제에는 보다 능숙한 성인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성립(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노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서 경제생활 및 시장환경에 대처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주거생활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대개 젊은 시절에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로서, 거의 모든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주거환경보다 많이 양호한 주거환경속에서 살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시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의 주거생활을 평가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의 주거생활에 대해 아주 만족해 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생활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배경변인 및 생활영역별 실태변인 분석

〈표 4〉는 일원분산분석 검증결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가족, 소비, 주거생활 실태변인)을 모두 포함시킨 회귀모델에 대해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가운데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맘머느리와의 접촉의 질($\beta=.38$), 단체활동량($\beta=.30$), 재정부족도($\beta=-.22$), 주택소유형태($\beta=.14$), 단독가구형성동기($\beta=.12$)였으며, 이들 5개 변인들은 생활만족도의 54.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으며, 특히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노부부 독립가구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들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조사에서는 표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 동기와 아울러 현재 독립해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직접적인 고부갈등 때문이거나 혹은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 4>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중회귀분석(II)

(N=180)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맘머느리와의 접촉의 질	.33	.38	6.90 ***	.294	
단체활동량	.30	.30	5.35 ***	.454	.160
재정부족도	-.21	-.22	- 3.63 ***	.509	.055
주택소유형태	1.22	.14	2.43 *	.525	.016
단독가구형성동기	1.16	.12	2.38 *	.540	.015
(상수)	6.22				

주) 주택소유형태(타가=0, 자가=1), 단독가구형성동기(기타=0, 자유로운 생활위해=1), 거주지역(서울=0, 부산=1), 지역적거리(같은도시 거주/이웃 거주, 다른도시 거주/이웃 거주)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

* $p < .05$ *** $p < .001$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우선 맘머느리와의 접촉의 질은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족생활만족도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맘머느리와의 질적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추측컨대,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서 단독가구 형성동기와 일부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선행연구들은 노인이 자녀들과의 독립을 선택하는 데에는 고부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예컨대, 원순영(1985)은 고령부부의 핵가족화는 고부간의 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김자혜(1992)도 아들 부부와 분리, 독립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

목적으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단독가구 형성동기가 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수동적으로 핵가족을 이루게 된 것인가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지고 있는 위의 연구결과에서도($\beta=.12$)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독가구 노인들은 장남과의 관계는 며느리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원순영, 1985), 맘머느리에 의해서 장남과의 관계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며, 생활의 여러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파악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만족,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

- 1) 배경변인(9개) :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단체활동량, 거주지역, 재정부족도, 단독가구형성동기.
- 가족생활변인(4개) : 공유활동량, 가족지원도, 장남과의 접촉의 질, 맘머느리와의 접촉의 질.
- 소비생활변인(3개) : 재정부족도, 시장구매문제, 물질주의.
- 주거생활변인(3개) : 주택소유형태, 주택사용형태, 근린생활시설 이용편리도.

한 면접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활동량이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두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최혜경, 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개인에게 효율감을 제공하며, 노화과정의 부정적인 생활측면들을 상쇄시켜 주며, 노년기에 상실되는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 같다. 또한 노인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식에 대한 의존 및 기대를 낮추고, 자녀와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추구함에 따라(Mindel & Wright, 1982), 더욱 만족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연구결과(Spreitzer & Snyder, 1975)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체복지를 위해 재정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생활의 질을 연구하는데 개인의 소비면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재정부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택소유형태가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택이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3대 요소중의 하나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특히 조사대상 노인세대들은 전후의 주거 불안정상황을 겪은 세대들이므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오는 생활의 불안정과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수의 절대부족과 주택가격의 폭등이라는 주택문제가 만연해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전반적인 생활에서 주택소유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V. 결 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몇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생활분야

첫째,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제생활영역중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여부가 노인의 생활만족을 가장 많이 결정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 도구적 조건보다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 가족과 자녀는 어떠한 형태로 생활하든 간에 여전히 가장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생활의 적응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원천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만며느리와와의 관계의 질이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족생활만족도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단독가구형성동기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노인단독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가족갈등 등의 비자발적인 동기에서 단독가구를 형성, 지속하게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제도하에서는 정서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도구적 지원체계에서 어려움과 문제성이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사회지원 서비스 확대와 다양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서비스, 가정원조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정서·경제·법률 상담서비스, 사회정보제공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부양체계와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노인들 스스로도 단독생활의 적응을 위해 경제적인 자립과 심리적 핵가족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독가구 여자노인과 장남가족간의 접촉의 양적 측면에서 '전화·만남'의 객관적 빈도는 여자노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시간을 함께 공유한 활동량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볼 때, 거주를 달리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기혼자녀 및 그 가족이 서로가 형식적, 의례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정이입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유하는 제활동에 적극적인 자

세를 취하는 것이 곧 노인이 만족한 가족생활을 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째, 부양할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와 불가피하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연로한 노부부, 특히 독신의 노인단독가구에 대해, 이웃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감정공동체 및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단독가구 노인들과 근접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은 단독가구 노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의 훌륭한 대안집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소비생활분야

첫째,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부족도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기능하고 소비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문제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세우기, 알뜰구매방법 등 주어진 소득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노인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자체보다 소득원의 수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간제 고용 등으로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전국민의 개인 연금제도의 실시로 지금의 청·장년층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으므로 특히 혼자사는 여자노인에게에는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여 소득을 다양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주거생활분야

첫째, 근린생활시설 이용편리도는 주거생활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결정요인이었으며, 단체활동량이 많은 노인들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주거단지를 개발할 경우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제공문제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외에 오락문화활동 등의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택소유형태가 단독가구노인의 주거생활만족도뿐 아니라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노인들이 여생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주택소유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및 친척과 별거하여 독신 또는 노부부만으로 형성되는 노인단독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다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자녀별거 노후부양의식이 높은(서전, 1991) 중·장년층의 예비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비·주거생활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상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부산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소비와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였으므로 질문 응답의 변별이 불가능한 가구는 제외시키고, 소득 및 건강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가구를 선정, 조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단독가구 여자노인이더라도 소득수준을 포함한 경제수준과 도시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의 특성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노인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노인단독가구만이 갖는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네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영역의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한 결과 각각의 영역을 깊이있게 다루는 데 한계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각 생활영역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활기를 띠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과 척도는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보다 신뢰성있고 타당한 척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특히 단독가구 노인들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사 및 생활경로적 접근방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공세권 외(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자혜(1992). 노부부 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293-323).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4) 김태현·한희선(1990).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시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0, 87-103.
- 5) 박경란·임춘희(1991).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적용. 인제논총 7(1), 301-332.
- 6)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 7) 서 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원순영(1985). 노년세대의 핵가족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유영숙(1985).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이가옥 외(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1)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이민표·박명희(1992). 노인 소비자연구의 실태와 전망. 소비자학 연구. 3(2), 29-43.
- 13) 이성림(1990). 노인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장경섭(1991). 가족문제. 고영복, 현대사회와 사회문제(189-225). 서울 : 서울대학교.
- 17) 장은정(1990).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도시·농촌지역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장인협·최성재(1987). 노년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 19)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부양체제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Bearden, W.O, Gustafsan A.W, & Mason, J.B. (1979). A path-analytic investigation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consumer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 386-391.
- 21) Chatfield, W.F. (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 593-599.
- 22) George, L.K. & Bearon, L.B.(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Meaning and Measurement*.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23) Kennedy, G.E.(1992).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 211-227.
- 24) Houser, B.B. & Berkman, S.L.(1984). Aging parent/mature 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95-299.
- 25) Hugles, B.(1990). Quality of life. In S.M.Peace (Ed). *Researching social gerontology: Concepts, methods and issues*(46-58). London : Sage Pub., Ltd.
- 26) Krause, N.(1993). Rac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aged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8(5), s235-244.
- 27) Lee, H.S.(1994).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strain o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the U. S.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8, 265-278.
- 28)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5.
- 29) Mindel, C.H. & Wright, R.(1982). Satisfaction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Journal of Gerontology* 37, 483-489.
- 30) Muhs, P.J.(1977).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aged individual in interaction with the family and larger social and environmental system. Ph. 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 31) Peroff, R. & McCaskey, P.(1978). Non-monetary costs associated with consumer fraud and dissatisfaction of the elderly.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24, 136-146.
- 32)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33) Rahtz, D.R., Sirgy, M.J. & Meadow, H.L.(1988).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TV viewership :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 141-145.
- 34) Sanders, G.F.(1983). Life satisfaction of older couples: A family strengths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35) Spreitzer, E. & Snyder, E.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9.
- 36) Thompson, L., & Walker, A.J.(1984). Mothers and daughters :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13-322.
- 37) Walker, A.J. &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